

대구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단22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건조물침입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2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평소에 레깅스를 입냐, 레깅스 입고 다니냐, 레깅스 입으면 손으로 성기를 만 쳐라"고 말하였다.

나. 201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9:0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제가 레깅스를 입고 있는데요. 흥분해서 쿠퍼액이 나와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간 뒤 2층 계단까지 올라가 사무실 안을 살펴본다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통화내용 정리,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정신지체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